

따로 놀던 삼성 IoT, 이젠 ‘스마트싱스’로 통한다

에어컨·TV·냉장고·태블릿 등
370여 기기 ‘원 클라우드’ 통합
IoT 개방형 생태계 구축 강화

삼성전자가 이달 26일께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SmartThings)’ 랜플랫폼으로 통합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통합으로 소비자에게 모든 제품이 연결되는 IoT 경험을 제공하고, 개발자들에게는 보다 쉽고 빠르게 삼성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개발 생태계로의 구축을 강화한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태블릿 화면을 TV화면과 쉽게 공유하는 ‘스마트 뷰’, IoT 플랫폼인 ‘아티크’, 가전 제품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삼성 커넥트’ 등 흩어져 있던 IoT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로 합친다.



삼성전자가 오는 26일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통합한다.

삼성전자의 모든 IoT 기기와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로 연결하면 스마트싱스 앱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연동,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클라우드 통합은 202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에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해 연결성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출시되는 에어컨을 비롯해 TV와 냉장고에는 스마트싱스 기반의 일원화된 스마트싱스 앱이 탑재된다.

스마트싱스 앱이 적용된 삼성 스마트TV는 TV 스크린을 통해 집 안의 전자기기들을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라고 명령하면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로 연결된 패밀리허브 냉장고 안의 식자재를 TV스크린에 보여준다. 또한 세탁기 작동 상태도 확인해 준다.

개발자들 역시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통합으로 개발 편리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스마트 뷰, 아티크, 삼성 커넥트 등에 맞춰 각각 솔루션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스마트싱스 클라우드 API를 이용해 모든 스마트싱스 제품과 연결되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합 IoT 클라우드는 그간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통합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상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지만 기존 삼성 커넥트 앱 사용자들은 업데이트 등으로 앱을 통합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스마트 흡 서비스는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돼 제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삼성 제품은 물론 다른 제품과의 연동도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비스를 통합해 개발자들의 접근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파월 첫 날 블랙먼데이… “완만한 긴축 확인 필요”

» 1면 ‘韓美日 통화권력 교체기’서 계속

실제 일본은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로다 총재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 30년간의 저성장을 탈피하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등 경제활성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만 지난 5년간 엔화 가치를 14%나 떨어뜨리는 등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타케시 미나미 노린추킨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구로다 총재의 재임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최고 수준

의 통화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韓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구로다 총재와 밀접한 스킨쉽을 이어왔다. 예정대로라면 구로다 총재와 이 총재는 함께 임기 만료를 맞이하고 후임에게 중앙은행 수장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다만 구로다 총재는 아베 총리의 신임과 함께 연임이 결정됐다. 이 총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가 예상된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등 공식 석상에서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입장을 나란히 했다. 다만 최근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연준이 내달 기

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국의 현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환경이 조성된다. 금통위 입장에서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을 장기간 용인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금리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자금 유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은 이미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을 인지하고 있고 글로벌 자금 이동은 금리 수준뿐 아니라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 금리역전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은행 본점에 시중은행에 방출되는 설 자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현상이 발생한다고 큰 폭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선 현재 한은 총재 후보군으로 5~6명 정도로 압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가 한은 출신이었던

신용의 산정-베틀표
유한양행
광고심의필: 2018-1426-1700

謹賀新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빼콤씨
액티브 정



8배 높은 흡수율로 더 강력해진 「빼콤씨 액티브」

육체피로 / 관절통 / 신경통 / 눈의 피로 / 근육통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